

■ 광주 남구 ‘군분로 글로벌 토요일아시장’ 가보니

“양궁 보고 볼거리·먹거리 즐기자”... 방문객 ‘들썩들썩’

맛깔난 음식·시끌벅적 사람 냄새 가득...상인들 화색

양궁·전통 체험도...일부 쓰레기 투기·흡연에 ‘눈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9월의 첫 토요일 밤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광주 남구 군분로 글로벌 토요일아시장.

2025 세계양궁선수권 및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5~28일) 기간에 무등시장 입구에서부터 월산동 신우신협 본점까지 1.1km 구간에서 운영하는 ‘K-아시장’이 개장했다.

‘광주의 밤, 활짝 열리다’를 주제로 열린 아시장 개장식은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김병내 남구청장, 정진욱

국회의원(동남갑), 남호현 남구의장 등 관계자와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군분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 거리 곳곳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아시장 곳곳에 마련된 음식부스에는 시장 상인들이 직접 만들어 낸 맛깔난 음식 냄새와 시끌벅적한 사람 냄새로 가득했다. 여기에 형형색색의 간판과 가로등까지 어우러지면서 마치 불야성을 방불케 했다.

음식부스에는 주문을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했고, 상인은 오리날개 튀김, 닭장정



지난 6일 오후 광주 남구 무등시장 입구에서부터 월산동 신우신협 본점까지 1.1km 구간에서 운영하는 ‘K-아시장’이 개장했다.

등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가족과 친구·연인 등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상인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취향껏 음식 주문을 마친 이들은 곳곳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공연·무대존에서 이뤄지는 K-POP

댄스와 광주·전남 여성 댄스팀인 KJN 파

워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즐겼다.

김이남씨(38)는 “양궁대회를 보고 나오는 길에 인근 아시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시장이 왓지결하고 활기찬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만족감을 표실했다.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은 전통놀이 및 체험·기념품 판매존이었다. 떡 메치기와 도자기 빚기, 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간짜선물 증정을 위한 물렛 이벤트 구간에도 길게 줄이 늘어섰다.

특히 양궁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인 이승윤과 광주 남구청 남자양궁팀 소속 선수들이 체험 부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실제 활시위를 당기며 양궁의 매력을 느꼈다.

시장 내부에 마련된 고추마켓(벼룩시

장)에서는 액세서리, 패션 소품, 공예품 등과 광주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구매하려는 인파들도 가득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통행이 잦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돼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해 개장한 군분로 아시장은 수많은 난관과 반대도 있었지만 방문객 유입(전년대비 65%)과 매출 증가(27%)의 결실을 얻고 있다”면서 “세계 공사들의 마음속에 군분로 아시장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네 상권 82곳을 ‘골목형 상징가’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진행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택 동구청장, 불법 문자 살포에 ‘강경 대응’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자신의 3선 도전을 반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살포한 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5일 ‘임택 동구청장 3선 도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구 발전과 변화를 위해’란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광주 전역에 무작위로 살포됐다.

임택 정장은 SNS를 통해 “3선 도전을 반대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의견을 존중하지만 뒤에 숨어서 익명의 전화변호로 불법을 저지르는 말라”며 “당당히 나와서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아직 선거는 많이 남았다. 전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음에도 이런 혼탁한 선거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어

참 안타깝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동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불법에 대해 관용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과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로 연락을 주셨는데 고맙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책 고르는 시민들 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2025 빛고를 책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북마켓에서 책을 고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 희생지’ 원각사에 6월 민주항쟁 기념비 건립

제막식 개최...군사독재 저항·민주주의 중요성 등 되새겨

광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발생했던 원각사에 6월 민주항쟁의 의미가 담긴 기념비가 세워졌다.

7일 광주 동구, 원각사 6월민주항쟁기념비건립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동구 중앙로 197번지 원각사에서 6월 민주항쟁 기념비 제막식이 진행됐다.

제막식은 1970~1980년대 원각사 스님과 청년 불자들이 군사독재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고 대종사,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준호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 의장을 비롯해 신도 1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사전 행사, 제막식, 경과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기념비 제작은 지난해 10월부터 현고 대종사(원각사 화주)와 윤선중 작가가 맡아 익산 미륵사지석탑의 당간지주에서 영감을 얻은 조형물에 6월 항쟁의 의미와 정신을 담은 형태로 제작했다.

기념비는 2.8m(가로)×1.5m(세로)×3m(높이) 규모로, 설치 비용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스님과 불자,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마련됐다.

원각사는 1988년 광주시 전통사찰로 지정·고시돼 불교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공인된 사찰이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불교연합회 광주지부장 김동수 법우를 비롯한 불교계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후 원각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한 추모법회를 매년 시행해 왔

다. 1987년 5월18일 제7주기 추모법회에서 50여명의 무장 경찰이 대웅전에 난입해 수십 발의 최루탄을 난사했다.

이에 조계종단과 전국 모든 불교 단체가 항의 성명서를 내고, 단식 투쟁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불교계는 정법수호와 종교자유, 사회정의 구현,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월항쟁에 동참했고 대통령 직선제 등이 담긴 헌법 초안에 기여했다.

제막식이 끝난 이후 신도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촬영을 하거나 기념비에 새겨진 건립 취지문을 읽으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기억했다.

건립위원장을 맡은 도제 스님(보은사주지)은 “원각사는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인권을 갈망하는 시민, 불자가 모인 곳이다”며 “억압에 굴하지 않는 6월항쟁의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기념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서구, 디지털 복지공간 구축 ‘눈길’

스마트경로당 운영...내달까지 120개소 확대

광주 서구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구는 최근 화정동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 화상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노래교실·요가교실 등 참여형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복지 공간이다.

서구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기 위해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에 전용 스튜디오를 설치·운영한다.

또 경로당에는 스마트경로당 도우미를

배치해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기기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구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 스마트태이블을 설치하고 튜링그림찾기, 두더지잡기 등 두뇌훈련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여가 활동을 돕는다.

오는 10월까지 서구는 스마트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 70곳을 추가해 총 12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l404@

사람과 도시

크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믿을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빗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유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S&B등급 보도돌 방호 울타리(설치의무화)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보행자를 방호울타리 경유(기준안락)
보도폭 확보 용이

빗물저류 침투조

·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 공극률 95% 이상
· RoHS 기준, 도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롤러 가드레일

개방형 가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주)한길산업

www.hngroad.co.kr

본 사 1(광주) 전남 함평군 학교면 화곡리 35 Tel.061)324-9123
사 무 소 2(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편도산1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US)로 172 한림휴먼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